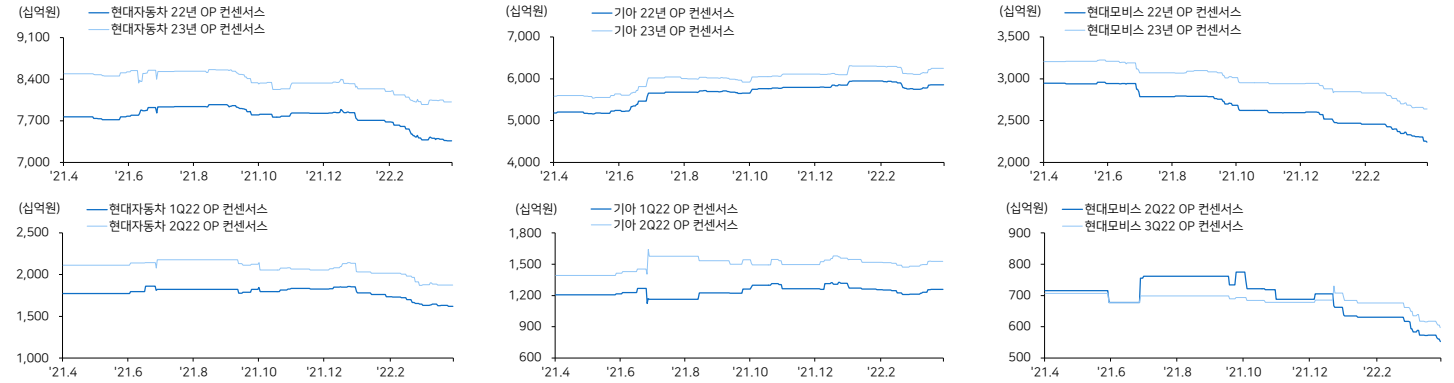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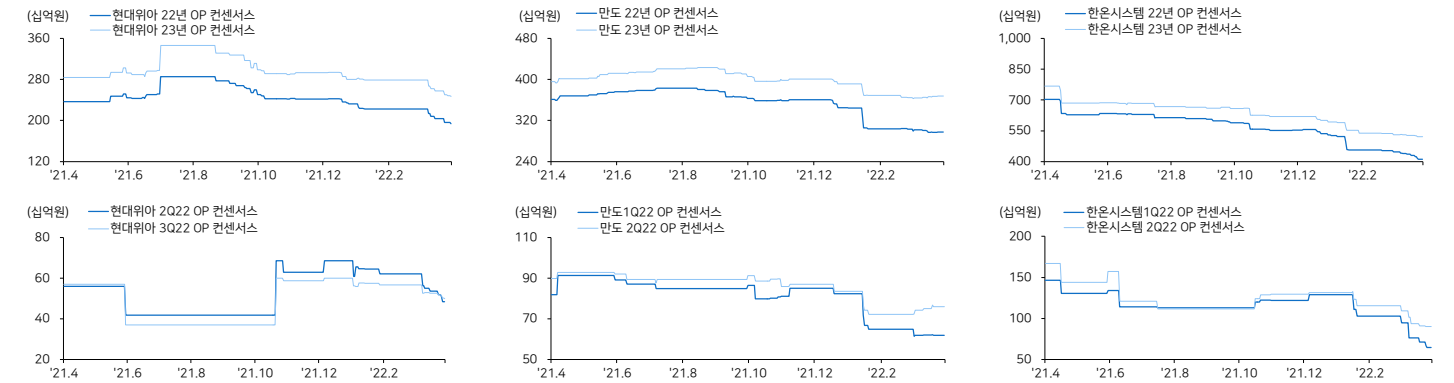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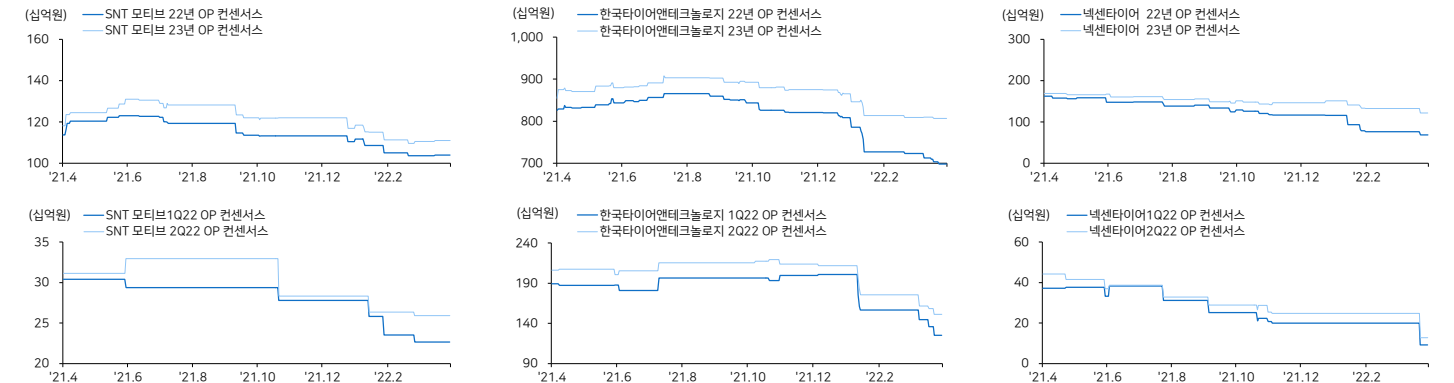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다음달엔 내 차 빨리 나올까...기아 '5월 차량제어 반도체 정상화 예상' (머니투데이)

기아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돼 올해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차량이 생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음. 다만 완전 정상화 시기는 언급되지 않음.
<https://bit.ly/3vcXtbt>

'유럽' 그린플레이션 '고조'...친환경 금속 재활용 늘려야 (연합뉴스)

벨기에 루벤(KU Leuven) 연구진은 "세계적인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구리, 코발트, 리튬, 니켈, 희토류 등의 채굴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2035년 전까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위험이 크다"고 분석함.
<https://bit.ly/3Kby7PK>

GM, Ford steer into the headwinds of inflation, rising rates (Reuters)

GM과 Ford는 지난 1월 경영진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지 않은 영업환경을 맞이한 것으로 예상됨. 중고차 업체들의 부진한 실적은 인플레이션이 소비자출에 미치는 영향 우려를 제기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이슈로 어려운 생산 환경이 예상됨.
<https://reut.rs/3xRP1Ah>

The Boring Company is finally going to make a full-scale version of Elon Musk's Hyperloop (electrek)

Boring Company는 올해 테스트를 위해 첫 번째 'Full-Scale' Hyperloop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힘. Boring Company는 SpaceX와 함께 하이퍼루프 튜브 또는 터널 내부 시스템 설계와 관련해 협업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
<https://bit.ly/3KqYkMJ>

현대차도 테슬라도 '알뜰폰 사업자'...통신3사 과점 달라질까 (한겨레)

현대차, 기아, 테슬라 등이 알뜰폰 사업자라는 점이 주목됨.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망을 저렴하게 빌려 고객들에게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예 알뜰폰 사업자로 변신한 셈.
<https://bit.ly/3KhNfLk>

중, 글로벌 리튬생산 1위로... 배터리의 원재료 시장도 장악 (조선일보)

간판리튬이 지난해 리튬 채굴 업체와 광산 등을 잇따라 인수해 글로벌 리튬 생산량 1위로 도약함. 중국업체의 리튬생산비중은 약 65%. 2020년만 해도 미국 엘버달과 칠레 SQM이 리튬 생산의 절대 강자였으나, 2021년 중국이 1위를 탈환.
<https://bit.ly/3y7gsGD>

Forecast: Li-Ion Battery Market Might Exceed 6 TWh/Year By 2030 (InsideEVs)

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글로벌 배터리 생산능력은 6TWh를 초과할 수 있음. 이는 배터리 업체들의 생산능력 계획을 기반으로 산정된 수치. 이를 위해 리튬 공급량은 10배 이상 증감이 필요.
<https://bit.ly/3OMf3N3>

The latest numbers on the microchip shortage: Production loss tops 1.5 million (Auto News)

올해 차량용반도체 공급부족으로 발표된 생산 차질 물량이 약 158만대로 알려졌다. 지난주 87,500대 중 35,600대는 북미, 32,800대는 중국과 아시아 지역, 유럽은 16,500대의 추가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됨.
<https://bit.ly/3yB0fW0>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는 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